

순천시 '안심 상권 만들기' 팔 걷어붙였다

건물주들과 임대 기간 보장·임대료 인상 자제 협약 소규모 상점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하기로

순천이 '안심 상권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핫'한 동네로 떠오르는 지역에서 임대료가 올라 소규모 상점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건물주들과 임대 기간 보장·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협약을 맺는 등 지자체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평가가 나온다.

순천시는 최근 건물주가 임대료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순천시 간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순천 남제·장천·저전동 일대

건물주 45명과 임차인 46명을 비롯,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건물주들은 5년 간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다. 주민협의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나서고 순천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펼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칫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는 게 순천시 설명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되

면 낙후된 도시환경이 개선되면서 임대료·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는 ▲장천·남제동을 중심으로 빈점포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 스마트시티 시범거리 등을 조성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저전동에 지역공동체 거점을 만들고 빈집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근린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정부에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핫'한 지역 뿐 아니다. 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도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순천시는 17일 '도시재생 청년창업 챌린지 스텝'을 확대 운영키로 하고 참여할 청년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젊은층 인구 유출로 우려되는 도심 공동화

를 막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청년들이 들어설 순천시 시민로 중앙시장과 성동초교 인근 건물주들은 5년 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시는 청년 사업자들의 임대료를 60% 지원하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2015년에도 시민로 중앙시장과 성동초교 인근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건물주들은 보증금을 없애고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약속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 재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이 활성화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건물주·임차인·주민 등 지역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선암사

'알·쓸·순·잡' 순천 탐방

(알수록 쓸모있는 순천 잡학여행)

지역 대학생들 구석구석 둘러보고 도시 디자인

참신한 정책 발굴 등 탐방학교 28일부터 운영

순천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구석구석을 탐방한다. 젊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록 더 나은 도시를 '디자인' 하기 위한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순천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순천시는 순천 도심과 마을, 시장, 생태공간 등을 누비는 '알·쓸·순·잡(알수록 쓸모있는 순천 잡학여행) 순천탐방학교'를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순천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참신한 지역 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할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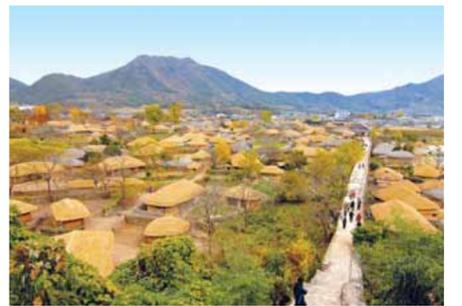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 50명은 오는 28일과 다음달 11일 순천 도심 4개 코스를 돌면서 미처 몰랐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생태를 들여다보게 된다.

4개 코스는 ▲생태와 미래(순천만습지, 국가정원~기적의 놀이터, 도서관~도시재생 현장) ▲마을과 재생(철도관사마을~청춘창고~문화의거리, 청수골~매곡탐매마을) ▲마을과 자원(주암문성~낙안읍성~상사 비촌마을~국가정원) ▲청년과 시장(청춘창고~청춘역~역전시장~아랫장~웃장) 등으로 나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처럼 순천을 잘 알게되면 도심 시설·공공서비스를 비롯, 정책 등 '더 나은 순천'을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청년들이 되지 않겠냐는 게 순천시 생각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비롯, 대학생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학점인증을 추진 방안 등을 대학측과 협의, 탐방학교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낙안읍성



순천시는 지난달 28일 지역 건물주들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은 순천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순천시 장천동 일대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시 아시아 생태문화 메카 육성 전걸음

주요 업무보고회 갖고 내년 추진 10대 핵심과제 발굴

2020년까지 생태도시 완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

아시아 생태문화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순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내년 국내 최고 생태도시 구축을 계기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와 소통하는 환경·생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도시 미래를 바꾸는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순천시는 최근 '2018년 주요업무보고회'를 갖고 내년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발굴, 예산 반영 및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순천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도시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핵심과제로 ▲순천형 좋은 일자리 창출 ▲아시아 생태문화중심 도시 기반 구축 ▲순천형 출산장려정책 마련

▲명품 생태도시 구축 ▲대한민국 정원산업 메카 실현 구체화 ▲복지 혁신 ▲미래성장동력 및 비전 마련 ▲전기차 및 수소차 도입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과제도 눈길을 끈다. 우선, '2030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내년 수립된다. 순천은 내년 완성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시켜나간다는 구상이다.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오는 2020년까지 생태 도시를 완성하고 2030년 아시아는 물론, 세계와 소통하면서 각국의 생태·환경 이슈와 담론이 오가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는 또 국가정원과 잡월드 일대를 '4차 산업혁명 실험장'으로 조성, 육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해 내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명품 생태도시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순천시 와룡동 일대 산지습지(0.495km)인 '릴리레 뱀대기'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추가 등록, 이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연안습지(순천만), 내륙습지(동천하구)와 연계한 세계적 습지보전 물보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와룡동 산지습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며 내년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원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정원산업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생생기반 구축, 유통판매망 활성화, 정원관광 및 일자리 창출 계획도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키로 했다.

- 순천시 내년 추진 주요 핵심과제
- ▲순천형 좋은 일자리 창출
 - ▲아시아 생태문화도시 기반 구축
 - ▲순천형 출산장려정책 마련
 - ▲명품 생태도시 구축
 - ▲정원산업 메카 실현 구체화
 - ▲미래성장동력 및 비전 마련
 - ▲전기차 및 수소차 도입 확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할 순천형 출산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원·반려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삼아 일자리 확보에도 힘써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순천시는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들어갈 예산 반영 계획·세부추진일정 등을 수립하고 올해 말 보고회 등을 거쳐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Jindo Culture and Art Festival / 珍島文化藝術祭

대한민국 / 민속문화예술특구

보배섬 진도

진도문화예술제

2017. 10. 19. 목 - 10. 22. 일 (4일간)

장소 진도읍 향토문화회관 일원

제25회

대한민국

우수지도개

선발대회

10. 21. (토) ~ 22. (일)

진도군 진도개테마파크 일원

제8회진도

꽃게한라당 잔치

10. 21. (토) ~ 22. (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일원